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도로 현황 

도로명	준공	현재 공정률
지방도 456호(진부 간평~대관령IC)	2016.12	63.0%
지방도 408호(면온IC~보광휘닉스파크)	2017.12	33.7
군도 12호(평창 유천~수하)	2016.12	59.68
군도 13호(싸리재~용산)	"	29.9
농어촌 205호(용산~횡계)	"	53.71
농어촌 209호(수하~횡계)	"	54.32
용평 알파인 진입도로	"	41.8
진부역 진입도로	2017.12	8.1



도로명	준공	현재 공정률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2016.12	41.0
지방도 456호(월정삼거리~차항)	2017.12	발주 중
군도 12호(우천~용산)	"	12.41
진부IC~호명교	"	공정계획 수립 중
대관령 우회도로	"	건설공사 개찰
선수촌~경기장	"	5.0
강릉대~죽헌교차로	"	6.0
강릉역~올림픽 비상 경기장	"	실시설계용역 중



개통 4개월 앞둔 '제2영동고속도로'

공정률 90%... 인천공항에서 직선 연결 올림픽 주접근로 역할
 사업 시작 13년만에 완공 눈앞... 서울~평창 1시간30분 이내
 내년 12월 개통 완료 16개 노선 '올림픽 도로'는 공정률 2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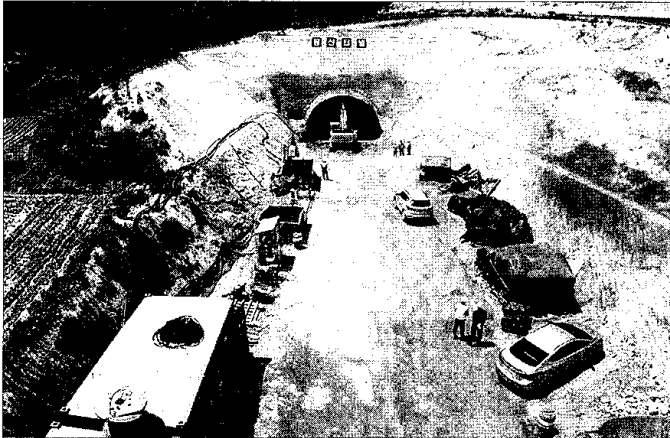
“강원도의 새 동맥입니다.”
 지난달 29일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기업도시에서 5분가량 대형 공사차량을 타고 언덕을 오르자 왕복 4차선의 세 방향 갈림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관련기사 2면
 이곳은 제2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원주 고속도로 제52호선) 신평JC다. 도내 3대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다. 수도권과 영서, 영동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

속도로, 도와 남부내륙을 잇는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지점이자 허브다. 이곳에서 직진하면 평창과 강릉 방면으로 갈 수 있다. 왼쪽 갈림길은 춘천, 오른쪽으로 가면 충북 제천으로 이어진다. 4개월 뒤인 오는 11월10일 개통되면 누구나 이 도로를 달릴 수 있다. 2003년 사업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현재 77분 걸리던 시간이 54분으로 23분이

단축된다. 평창까지는 1시간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더욱이 고질적인 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제2영동고속도로로 분산, 체감 효과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제2영동고속도로의 현재 공정률은 90%다. 공사의 최대 난관인 12개, 13km의 터널이 모두 뚫렸고 74개의 교량도 전부 연결됐다. 이제 포장과 양생(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보

호·관리하는 단계)작업만이 남은 공사장에는 시끄러운 공사장비의 굉음, 발파음도 들리지 않았다.
 2003년 제2영동고속도로 계획단계부터 참여한 제이영동고속도로(주) 건설본부 홍성만 팀장은 “기존 영동선을 보조하며 고질적인 정체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선으로 연결돼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접근로 역할은 물론 강원과 경기 남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간교통망 중 하나인 제2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올림픽을 앞두고 새로 개통되는 16개 노선인 이른바 ‘올림픽 도로’는 25.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안에 모두 착공된다. 최기영기자 answer07@

/ ‘올림픽 도로’ 16개 노선 서서히 위용 /



◇원주~강릉 고속철도 진부역~동계올림픽경기장을 연결하는 진부역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종점인 대관령면 용산터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 평창=김영석기자



◇6월 29일 오후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전경. 공정률이 45%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장과 강릉 시내권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릉=임재혁기자 jaehyek@kwnews.co.kr

고속도로·전철~경기장 잇는 ‘가장 빠른 길’

국가기간망 연결 가치

올림픽 도로는 일차적으로 공항과 도로, 철도에서 베뉴(Venue·경기장)를 잇는 역할을 한다.

제2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올림픽 이전인 2003년 처음 계획된 사업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과 평창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이라 올림픽 도로의 역할이 커졌다.

5,399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올림픽 진입도로 16개 노

선 5,399억 투입 현재 25% 공정률 영동권 원스톱 연결 기반 확보 개최지 관광 명소 접근성 개선

선 역시 원주~강릉 복선전철, 영동고속도로에서 경기장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16개 올림픽 도로의 현재 평균 공정률은 25% 정도다. 이달 중에 모든 도로가 착공되며 내년 12월에 일제히 개통된다. 올림픽 도로

는 대회 이후에도 강릉과 평창의 주요 관광지와 국가기간교통망을 원스톱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강릉역~빙상클러스터를 잇는 도로는 대회 이후에도 전철을 타고는 관광객들이 경포관광지 일대로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보광휘닉스파크의 경우 면운IC에서 왕복 2차선의 열악한 도로로 연결돼 있으나 진입도로가 준공되

면 4차로의 쾌적한 길로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올림픽 도로는 경기장은 물론 도내 주요관광지를 거미줄처럼 잇는 관광교통망이 된다.

도동계올림픽본부 관계자는 “올림픽 도로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올림픽 수송은 물론 접근성 개선으로 대회 이후에도 도내 주요 관광지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도심-외곽 거미줄 연결 관광·유통망 획기적 개선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어지는 올림픽 접근도로는 대회 이후에도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올림픽 도로 중 한 곳인 진부역 진입도로(호명~용산) 개설공사는 지난 1월20일 착공, 현재 3개 구구 모두 평균 1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989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

강릉역~경기장 보행로 활용 대관령·진부 농산물 반출 용이

자해 평창 진부면 호명리~대관령면 용산리를 잇는 왕복 2차선 도로 9.03km에 터널 3곳과 교량 9곳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경기장 접근 도로망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다.

더욱이 올림픽대회 이후에도 고랭지 채소의 주산지인 대관령과 진부 지역 농산물 반출은 물론 진부

역~대관령을 잇는 관광도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 45%의 공정률을 보이는 강릉 올림픽파크 진입도로의 경우 경기장과 강릉시내권을 연결,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주~강릉 철도의 종착역인 강릉시 교2동의 강릉역과 올림픽 경기장을 잇는 0.9km 길이의 도로는 올림픽 이후에는 보행전용 도로로 이용될 예정이다.

남울봉 진부역진입도로 건설사업관리단장은 “동계올림픽 성공개

최와 이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현장 근로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강릉=김영석·임재혁 기자

강원도 유일의 가사, 형사법 전문분야 등 특법무법인 일련 김혜란 변호사

- 춘천여고(56회)
- 서울대, 사법시절(45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2014. 2. 퇴직)



이론,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전문변호사에게!

☎ 0331 747-6050-2

원주시 무실동 원주법원 앞 법조인타운3층(산속이전)